12연기, 우주 생멸 근본 이치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㉓ 영원한 진리 '12연기'



그림 · 강병호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으며,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생물학과 교수는 〈컨실리언스(Consilience, 통섭)〉에서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연기론은 부처님께서 설명한 존재론이다. 12연기는 연기의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통합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내 이제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니 잘 들어라. 12연기는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를 말하며 사성제의 고집성제로써 고의 원인을 말한다' 고 설한 바 있다.

12연기의 구성

12연기는 무명 ·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로 이루어져 있다.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이 몸을 만들어서 죽고 태어나는 과정은 바로 12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아난아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늙고 죽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생(生),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의 인연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고 말해라. 어떤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몸을 받아 태어나느냐고 물으면 유(有),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유의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다고 말하라. 어떤 인연으로 유, 존재가 있느냐고 물으면 취. 바로 취득하는 것. 취의 인연으로 유가 있다고 대답하라."

이와 같이 취는 애를 인연으로, 촉은 육입을, 육입은 명색을, 명색은 식을, 식은 행을, 행은 무명을 인연으로 한다. 우주에 존재하고 생멸하고 있는 근본 원인과 이치를 밝힌 것이 12연기이다.

차제성과 실상

시간연기는 연기하여 일어난다고 했다. 시간의 관점에서 연기를 이해한다면 항상 앞에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오온 연기는 앞의 것에 상관없이 색 · 수 · 상 · 행 · 식이 그냥 그대로 함께 있는 것이다. 덩어리와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몸뚱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오온 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12연기가 성립하는 근거는 차제성과 실상이다. 무상과 무아를 아는 것이 연기이므로 12연기가 성립하는 근거는 명이다. 명은 '비드야(vidya)' 이며, 실존하는 것이며, 밝히는 것이다. 밝게 아는 것이 바로 12연기의 성립 근거가 된다. 결국 안다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고 제대로 밝히고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명이다.

연기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이트야 삼우뜨파다(pratityasamutpada)' 이다. '프라티' 는 '~에 대하여' '~을 향하여' 이며, '이' 는 '가다' 이며, '트야' 는 '~하여, ~향하여 가서' 이다. '삼' 은 '함께' , '우뜨' 는 '위로 일어남' , '파다' 는 '가다' 를 의미한다. 그래서 '프라티이트야 삼우뜨파다' 는 기대기도 하고 함께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다.

색과 무명이라는 것

명색이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색 · 수 · 상 · 행 · 식에서 색은 몸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명은 우리의 정신이며, 색은 육체를 가르킨다. 정신과 육체가 바로 명색이다. 명색이 조금 더 분화된 것이 육입이다. 육이라 하면 육근, 육경이 떠오른다. 육입이라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시간연기로 연결되어 촉 · 수 · 애 그 다음 취가 나오고 유가 나오고, 생 · 노사가 나온다.

생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태어나는 것 다음에서 막혀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남 다음엔 왜 유인가? 이 존재를 이해하는 것 보다 거꾸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했다. 그러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보자.

오온의 색, 수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모르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불안이다. 불안을 극복해가는 방법은 '자기화' 이다.

> 12연기 성립 근거 차제성 · 실상
> 무상과 무아 아는 것이 곧 연기
> 밝게 아는 것 12연기 성립 근거
> 존재의 실상 바로 인식함이 '明'

'자기화' 는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불안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불안이라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움직임이다. 불안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막아 자기에게로 끌어다 붙이는 행을 만들어낸다.

명의 속성은 바로 '성성적정' 이다. 고요함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고요가 아니라 끝없이 깨어있는 '고요' 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성성적정' 이라 한다. 명의 속성은 '성성적정' 이다.

그런데 무명은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과 공포가 결국은 자기화로 만들어간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고 행동이 있어 결국은 무명이 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행이라는 것

무명 다음에 오는 행은 변화를 막으려는 결합생성작용이다.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결합행위가 바로 행이다. 무명이 없으면 행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명 때문에 몸뚱이를 만들어졌듯이 무명 때문에 행이 발생한다.

부처님께서 깨치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갈파한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이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다는 것이다. 12연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연기의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다' 를 이해할 수 있다.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무명이 있다. 이것이 없음으로서 저것이 없어지고, 무명이 없음으로 행이 없어지는 것이다. 12연기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연기가 탄생하게 된다.

행은 '상스카라(samskara)' 라 하며 '존재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결합행위' 이다. 어떤 경우에는 행과 무명이 함께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명에 의해 행이 생기면 무명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없어져버리고 행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식이라는 것

식은 결합된 것(행)과 결합되기 전의 것(무명)을 완전하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식(識, Vinnana)은 행동을 일으키는 생각, 즉 인식작용 또는 인식판단의 주관으로 6식을 말한다.

행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것, 즉 불안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인식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식이 발생한다. 식은 6근과 6경이 부딪힘으로 생기는 식이다. 식은 행이 결합된 것이다. 결합되기 전은 무명으로 행과 무명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식인 것이다.

식은 '뷔즌야나(vijnana)' 라고 하며 '변화의 전후법을 다르게 인식하는 분별작용' 이다. 식의 근본 속성은 모든 것은 항상 다르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없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그것을 똑같이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다르게 인식한다. 자기에게 누적되어 있는 업의 형태만큼 식을 인식한다. 이 식이라는 것은 결합된 것, 행과 결합되기 전의 것, 무명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오온에서는 색 · 수 · 상 · 행 · 식으로 끝났다. 식이 오기까지는 색 · 수 · 상 · 행 · 식이 있어서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이 있기까지는 앞에 색부터 시작해서 색 · 수 · 상 · 행 · 식까지 생기는 것이 식이다. 오온에서의 식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여기서 만들어진다.

명색이라는 것

명색이라 할 때 몸뚱이가 색이고 명은 정신이다. 정신과 육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색이 만들어진다.

모든 색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색이 사라져도 남아있다. 모든 색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형상이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홍길동을 이렇게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를 홍길동으로 안다. 홍길동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홍길동은 없어져도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남는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홍길동을 떠올리면 그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이생이 끝나 다음 생에 가더라도 한 번 인식 한 것은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억 겁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한 번 본 것은 모두 업 속에 저장되어 있다.

색이 사라져도 인식은 내 안에 남아있다. 사과를 보면 침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색은 사라져도 이름은 남아서 그 이름만 들어도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식과 명색이 함께 몸뚱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태아가 엄마 몸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형체도 없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체를 만들어간다. 형상을 만들어가듯이 명색이 육입을 만든다. 정신밖에 없던 것이 이제 구체적인 형상인 육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목사의 설교는 스토리텔링으로

강한 카리스마의 고음대에서 설교하며 1년 설교 중에서 한 번만 재탕해도 시비가 있어 늘 새로운 설교 작성에 심혈을 쏟음

염불은 청아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음율에 염불을 실려야 하며 천수경을 수 천번 반복해도 절대로 재탕 시비 안하는 원인은 오직! 소리 가락에만 심취하기 때문!

검증법 : 중대형 사찰들이 복잡하게 잔뜩 채워 나열한 몇천 음향시설들과는 정반대로 가격 $\frac{1}{10}$ 의 간단한 디지털 견본과 소리비교시 정확하게 장난감 소리의 차이를 확인!

본품의 장점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 설법은 성우소리! 염불은 마이크와 2m 멀리서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음향세계 지각변동제품!

염불의 운명을 바꾸는 시스템 소개 (방문시 1억대 마이크를 스마트폰으로 소개)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까지 2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하게 월등함. (방문시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장기할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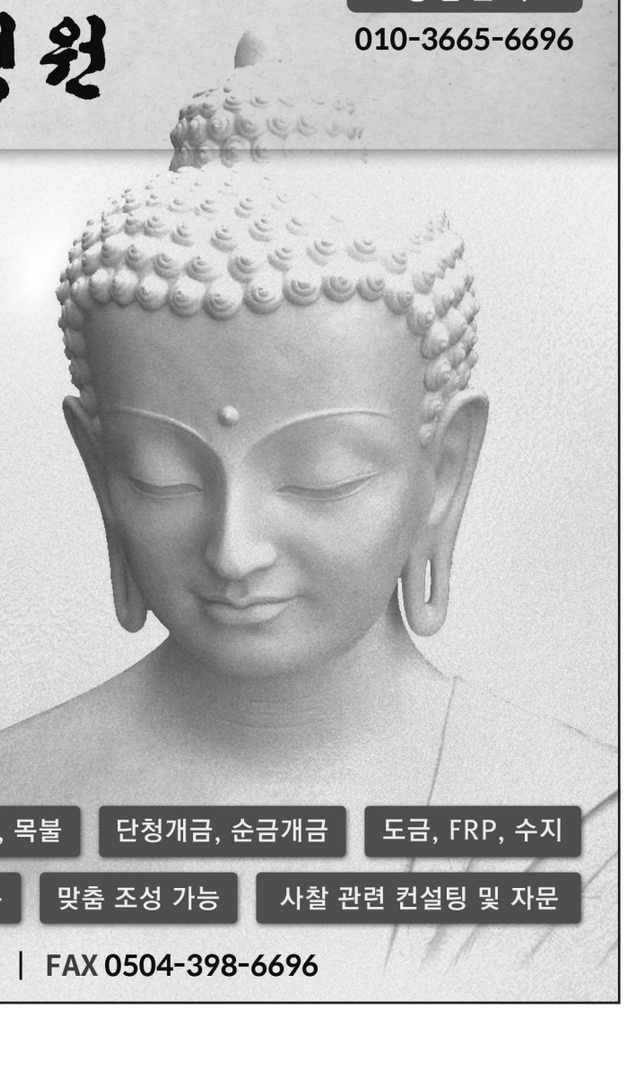
▣ **소리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 미디어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